

II. IMF 경제 정보

1. '세계 경제 불황(Global Deflation) 가능성' 논의

- (논의의 배경) 아시아 경제 위기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계 경제 불황'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위기 파급 경로) '세계 경제 불황론'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금융 위기의 국가간 확산, 국제 유동성의 경색, 교역을 통한 경기 침체의 전파 등의 파급 경로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1930년대의 대공황 형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아시아 경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인 동남아, 동구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임

○ (논의의 배경) 아시아의 금융 위기가 지속되면서 최근 "세계 경제 불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90년대에 들어와 전세계적 과잉 생산 능력에 따른 상품 시장의 가격 하락과 아시아 경제 위기로 미·일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계 경제 불황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로버트 라이히 前 美노동부 장관의 경고에 이어 미셸 캉드쉬 IMF 총재도 최근 G-24 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적 차원의 재앙으로 확산될 위험을 경고
- WEFA는 세계 실질 소득 증가율 예상치를 3.5%(97.11.)에서 2.9%(98.1.)로 하향 조정했고, IMF도 세계 생산 증가율을 4.3%(97.10.)에서 3.5%(97.12.)로 하향 예측함

○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급 경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 유동성 경색, 교역을 통한 경기 침체의 전파 등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는 낙후된 금융 시장 구조와 유사한 경제 개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로 급격히 전파될 수 있음
 - 외국 투자자들이 이들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및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는 경향이 있음
 - 동구권 국가들과 남미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무역수지 적자, 재정적자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교역 구조를 통해 선진경제권에 경기침체를 전파
 - 선진국에서는 아시아 통화가치의 대폭적 절하로 가격경쟁력을 복원한 아시아 제품의 수입 증가와 이에 따른 수출 부진, 교역재 산업 부문의 실업 발생이 예상
 - 특히 미국은 對아시아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아시아

-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동성 경색 가능성
 - 아시아에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일본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미국채 등 해외 채권을 대량 매각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음
 - 중국 위엔(元)화가 평가절하될 경우 선진국 자본의 아시아 투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임
- (세계 경제 불황 가능성 진단) 1930년대의 대공황 형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아시아 경제위기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
 - 중국의 위엔(元)화 평가 절하, 일본 정부의 재정확대 실패와 일본 경기침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채무지불유예 등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자금흐름 경색, 주가·부동산 가격 폭락, 실업 증가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그 파급효과로 세계 경제가 둔화됨
 - 80년대 외채 위기를 겪으면서 통화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아시아 통화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낮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동구 국가들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파급 가능성이 높음
 - 동구 국가들은 체제이행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직적 환율제도를 운영, 통화위기 가능성이 상존
 - 러시아에서는 자금 이탈·금리 폭등·환율 불안 등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남
 - 선진국들도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월 21일 열리는 G-7회담에서 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협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시사점) 동남아와 동구 지역 진출 기업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 수립이 시급함
 - 동구 및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황 변화를 예측하여 시나리오별로 충분한 대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진출국의 대외채무지불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받아야 할 채권이 동결되거나 외환·금융시장 마비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음
 - 또한 진출한 국가가 폐쇄 경제로 접어들 경우 사업 철수도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필요함
 - 그러나 지역적인 금융 불안의 경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음
 - 수출 위주의 현지 진출 기업은 수출 대금의 철저한 달러화 결제, 자금 예치시 외국계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외환 위기에 대처해야 할 것임
 - 진출 현지의 환율이 低點에서 안정될 경우 저임금, 진출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격적인 진출도 가능할 수 있음 (이 준 호, 김 연 호)